

한미재단의 1958년 뉴욕 전시회 후원과 그 의미

정무정

I. 들어가는 말

鄭茂正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뉴욕시립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20세기 미국, 유럽 미술사

1958년 2월 7일, 뉴욕시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1957년 12월 15일에 개막한 《국보전 *Masterpieces of Korean Art*》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의 전시를 끝내고 뉴욕에서의 순회전을 위한 개막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국보전》이 개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술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최고급 호텔 칼라일 호텔(Carlyle Hotel)에 자리한 월드하우스 화랑(World House Galleries)에서는 《현대한국회화전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1958년 초봄에 뉴욕시의 주요 전시공간에서 한국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이 동시에 뉴욕시민들을 맞이한 이례적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국보전》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전시이고, 《현대한국회화전》은 사설화랑 주최로 진행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두 전시의 후원자 목록에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이라는 단체가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7383).

** 필자의 최근 논저: 「백화점으로 간 미술작품: 메이시 극동 페스티벌 한국전시장의 성격과 의미」, 『미술사논단』55, 2022; 「박수근과 외국인 소장가의 조우: 냉전문화의 한 양상」, 『동양미술사학』14, 2022.

공통으로 등장한다.

한국사회에서 한미재단의 존재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잘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밀턴 아이젠하워(Milton S. Eisenhower)가 한미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수락했다는 기사가 실린 바로 다음 날 『동아일보』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 재단의 목적이 “한미 양 국민을 문화,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시키는 데 있다고 보도하였고, 한국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구상을 위해 파견된 한미재단 1차 사절단이 도착한 직후에는 『조선일보』가 한미재단을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한미 양 국민 간의 친선을 증진하고 역사, 문화, 풍속 및 사회생활에 관한 상호이해를 깊이 하는 동시에 한국을 위한 교육, 보건 및 후생 부문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인사들이 모여 설치한 것”이라는 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¹ 그러나 이후에 전개된 한미재단의 활동은 전쟁고아, 미망인, 장애인, 상인군인, 부산 화재민 등을 위한 긴급구호와 지원 위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적어도 195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에서 한미재단은 민간구호단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도드라졌다. 따라서 1958년 뉴욕에서 개최된 두 개의 전시에 대한 한미재단의 후원은 다소 이례적인 느낌이 든다.

한미재단이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후원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미재단의 전반적 활동 양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재단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한미재단에 관한 가장 이른 연구는 2008년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한국 가르치기: 냉전기 현대화, 모범적 소수자 그리고 미국의 국제주의 Teaching Korea: Modernization, Model Minorities, and American Internationalism in the Cold War Era」라는 박사 논문이다. 이 논문은 풍부한 1차 사료, 특히 미주리 대학이 소장한 한미재단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AFAK), 미대한국제협회(American Relief for Korea, ARK), 유니테리안 봉사회(Unitarian Service Committee, USC)의 활동과 함께 한미재단을 4장에 한정해서 살피고, 이들 단체가 수행한 지원과 재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현대화 이면에 존재하는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초점을 맞추느라 한미재단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²

1 “Korea Post Taken by Dr. Eisenhower,” *The New York Times*, 1952. 12. 15; 「아원수영제 임명」, 『동아일보』, 1952. 12. 17, p.2; 「한미재단이란?」, 『조선일보』, 1953. 3. 13, p.2.

2 Chi, James Sang, “Teaching Korea: Modernization, Model Minorities, and American Inter-

국내에서는 2015년 나온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이라는 석사 논문이 한미재단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사례에 해당한다. 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미국 국립문서관(NARA)에서 수집한 자료와 기타 국내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 논문은 한미재단의 설립배경, 조직 구성, 사업내용 등을 밝히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로 연구범위를 1955년까지로 한정하는 한계를 보인다.³ 2016년에 발표된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라는 학술논문은 스탠포드대학 후버아카이브 소장인 조지 팩스 모트 문서(George Fox Mott papers)를 토대로 한미재단의 4-H 클럽 지원 사업 활동과 그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1970년대로 확장하는 성과를 보이거나 저자 자신도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막기 위해 한미재단의 한국 원조 규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⁴ 한편 2017년에 나온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이라는 석사 논문은 국내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영역에서 전개된 한미재단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역시 연구범위를 195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⁵ 전반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 주제와 시기가 제한되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재단에 관한 연구에서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었던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주리 주립역사협회(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를 방문하여 그곳에 소장된 하워드 A. 러스크 문서(Howard A. Rusk Papers, 1937~1991)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재단이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후원하게 된 배경을 파악해보고자 한다.⁶ 러스크 문서는 총 888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러스크가 한미재단 활동을 하면서 생산된 서신, 사진, 보도자료, 보고서, 회계자료 등의 자료를 담고 있다. 러스크 문서에 한미재단 관련 1차 사료가 축적된 배경에는 미주리 출신의 러스크가 1953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미재단의 방한 사절단을 이끌었고, 이후 한미재단의 총재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재단의 사업을 주도했

nationalism in the Cold War Era”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8), 참조.

3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4 이봉범,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한국학연구』43(2016. 11), pp.253, 205-259.

5 권영훈,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6 뉴욕에서 개최된 두 전시의 기획과정과 작품구성에 대해서는 정무정,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14(2005. 8), pp.7-41 참조.

기 때문에 판단된다.⁷

II. 한미재단의 설립 및 조직 구성

한미재단이 정확히 언제 설립되었는지 적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설립배경과 시기를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한다. 1954년 4월 20일의 이사회에 제출된 총재의 보고서에는 한미재단이 1952년 9월에 창립되었고, 11월에 면세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⁸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된 보고서에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한국 재건을 지원하자”고 제언한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권유에 힘입어 한미재단은 당시 전쟁으로 황폐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미국민의 일부 뜻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1952년 백악관에서 발기, 창설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⁹ 그러나 재단의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은 1952년 9월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1월 26일 열린 이사회에 총재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1952년 5월 15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재단의 활동이 1952년 5월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⁰

한미재단의 설립 초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법인설립증명서와 정관이다. 한미재단의 법인설립증명서에는 1952년 7월 30일에 공증인의 공증을, 8월 1

7 러스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세계장애인복지협회를 통해 한국의 재건과 관련한 여러 제안을 하며 한국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그는 1952년 12월에 롤랜드 드 마르코(Roland De Marco)가 한국의 재건상황 조사를 위한 한국방문 참여를 권유한 뒤, 워싱턴에서 밀턴 아이젠하워 한미재단 이사장과 만나 한국 방문을 구체화했고, 뉴욕타임스의 오브리 드라이푸스(Ovri Dryfoos)도 관심을 갖고 여러 조언을 해주어서 한미재단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Letter from Howard A. Rusk to Arthur Sulzberger, February 16, 1953, Rusk Papers, f.306, Organizations, A-K Foundation, Administrative, January-June, 1953, SHSMO-Center for Missouri Studies, Columbia, Missouri (이하 SHSMO 소장 한미재단 사료는 Rusk Papers, f.번호로 약칭).

8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April 20, 1954,” Rusk Papers, f.291.

9 도로서 후로스트, 『창립 제20주년 기념 한미재단』(한미재단, 1972), p.4.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듯 이러한 설명의 이면에는 냉전질서가 확립되던 시기에 대내외에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비공식단체를 필요로 했던 미 정부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소라, 앞의 논문, pp.8-13 참조.

10 “Report to the CEO to the Board of Directors, January 26, 1954,” Rusk Papers, f.291. 밀턴 아이젠하워(Milton S. Eisenhower)의 이사장직 수락 소식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재단의 사무총장인 팔머 베비스(Palmer Bevis)가 한미재단에 대해 소개하며 시급한 사업으로 십만 명 이상의 전쟁고아 지원, 고령의 병약자 돌봄, 직업학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단 사무소 소재지와 기부금 납부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Korea Post Taken by Dr. Eisenhower,” *The New York Times*, 1952. 12. 15.

일에 뉴욕주 대법관의 승인을, 그리고 8월 14일에 뉴욕주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¹¹ 따라서 한미재단의 설립이 1952년 9월이라는 것은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한미재단은 미국 정부가 대외원조활동에서 정부와 민간의 프로그램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 산하에 설치한 자발적해외원조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 ACVFA)에 기관등록을 마쳤다.¹² 법인설립증명서에는 재단설립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료, 구호, 교육, 문화와 관련한 세부적 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나 완성된 형태의 사업 내용은 1953년 4월 8일 핀치 대학(Finch College)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제출된 정관에 제시되어 있다.

1953년 4월의 이사회 일정은 1) 이사장 인사말; 2) 사무총장 팔머 베비스의 과거 활동보고; 3) 데이비드 록펠러의 재무보고; 4) 정관 채택; 5) 임원 및 추가 이사 선출; 6) 집행위원회 선임; 7) 러스크 사절단 보고; 8)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논의로 이루어져 있어 이 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조직과 사업 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재단의 정관은 한미재단의 목적을 “한국을 위한 교육, 보건, 재건, 경제, 일반 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고, 미국인과 한국인의 상호 우의와 친교를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의 역사, 문화, 풍습, 민주적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정관에 첨부된 자료에는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이 11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처음 5개 항목의 내용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유엔의 활동이 갖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문제에 관한 지속적 연구의 지원, 한국과 다른 나라의 경제 관계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지원, 미국과 한국의 상호 역사, 문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장려, 양국의 미술, 음악, 문학 등 문화교류 장려, 미디어를 통한 한국문제 관련 비당파적 논의의 장려로 이루어져 있어 일종의 정책자문 기관으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듯 실질적으로 1970년대까지의 한미재단의 활동은 처음 5개 항목의 사업보다는 나머지 6개의 항목, 즉 장학금 지원과 교육자료 기증, 유엔의 재건프로그램 보조, 기존의 자선협회나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병원, 복지단체, 훈련센터 설

1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Rusk Papers, f.289.

12 “Certificate of Registration, January 23, 1953,” Rusk Papers, f.289.

13 “By-Laws of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INC.,” Rusk Papers, f.289. 정관에는 일부 규정에 수기로 수정된 부분이 있어 이사회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립, 한국의 의료문제 조사, 미국 기업의 자발적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가능성 타진, 한국의 복지 및 한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미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로 이사의 숫자는 3인 이상 50명 미만이며,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연례 이사회에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¹⁴ 또한, 이사회에서는 1년 임기의 이사장(chairman), 상임부이사장(executive vice-chairman), 3명의 부이사장, 서기(secretary), 재무이사(treasurer) 등의 임원을 다수결로 선출하며, 당연직인 이사장, 재무이사, 서기 외에 이사회에서 선출한 8명의 이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재단의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⁵ 1953년 4월의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밀턴 아이젠하워 이사장, 롤랜드 드 마르코 상임부이사장, 로이 초크(O. Roy Chalk), 포레스트 탠서(Forrest Tancer), 네이션 커밍스(Nathan Cummings) 부이사장,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 Rockefeller) 재무이사, 헤이워드(J.B. Hayward) 서기, 팔머 비버 사무총장 외에 한미 양국의 대사로 이루어진 명예이사장이었다.¹⁶ 그러나 초대 이사진의 구성이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1954년 4월 20일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스크는 아이젠하워 박사가 애초에 재단의 초창기에만 이사장을 맡기로 했는데 1953년 9월 17일에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 Van Fleet)가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났고, 팔머도 1954년 1월 26일에 사무총장직을 그만두고 미서부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월 27일부터 자신이 무보수의 총재직을 임시로 맡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도 탁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유급 전임 총재가 충원될 때까지 맡기로 한 것이고 그러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한 물밑작업 진행되어 늦어도 1954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는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¹⁷

14 2달 후인 1953년 6월 11일에 개최된 특별이사회에서 이사의 숫자를 15인 이상 100명 미만으로 수정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기금모금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Special Meeting of Members to Be Held June 11, 1953," Rusk Papers, f.289.

15 임원의 명칭은 『창립 제20주년 기념 한미재단』, 4쪽의 표기를 따랐다.

16 "\$5,000,000 Is Sought for Korean Relief," *The New York Times*, 1953. 4. 9. 러스크 문서 f.289에는 총 49명으로 이루어진 이사명단이 존재하는데 이 문서에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로버트 존슨(Robert L. Johnson), 헤이워드, 레이놀즈(R.S. Reynolds, Jr.)가,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데이비드 록펠러, 윌리엄 코터(William E. Cotter), 스피로스 스퀴라스(Spyros P. Skouras), 윌리엄 제켄도르프(William Zeckendorf), 버나드 김벨(Bernard Gimbel)이 수기로 표시되어 있다.

17 "Report of the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April 20, 1954," Rusk Papers, f.291, 1954년 1월 27일 러스크가 맡은 총재(president)라는 직책은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스크가 임시 총재직을 수



1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한미재단 2차 사절단 1953년 8월 20일-27일

왼쪽부터 프란체스카 여사, 몬산토 화학회사 이사장 에드가 퀸니(Edgar M. Queeny), 이승만 대통령, 윌리엄 제켄도르프(William Zeckendorf), 사절단장 하워드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Edgar M. Queeny
 "What Now for Korea?"
 Monsanto Magazine
 (Oct.-Nov. 1953)
 p.13

그러나 임시로 맡았다는 총재직 선출 관련 보도 자료에서 러스크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느라 막대한 피해를 본 한국은 자유세계가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한미재단이 한국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약 백만 달러를 배정하

고 재단의 기금조성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다.¹⁸ 이후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러스크는 한미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재단의 사업을 총괄하였다.¹⁹ 1953년 두 차례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전후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직접 조사했던 경험이 점진적으로 한미재단에 대한 사명감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²⁰ 한미재단이 특히 한국의 보건의료 체제의 기반 구축에 크게 공헌하게 된 것은 이러한 러스크의 이력이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

III. 한미재단의 재정상태

한미재단의 정관에는 회계연도가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러스크 문서에 남아있는 회계 관련 문서는 이러한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은 러스크 문서와 조지 팩스 모트 문서를 토대로 1952년 5월 15일부

락한 것도 재할의학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린 봉사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영부인이 러스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러스크의 총재직 사임 압박을 아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Letter from Francesca to Mrs. Rusk, April 13, 1954, Rusk Papers, f.308, Organizations, A-K Foundation, Correspondence, 1954.

18 Rusk Papers, f.325, Organizations, A-K Foundation, Promotional, 1954-1956.

19 1954년도의 활동을 보고하는 회의록에서 러스크가 이사장에 선출되었다는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할 수 있으나 날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한미재단 관련 문서에서 러스크가 이사장으로 표기된 가장 이른 서류는 1955년 1월 24일 자 편지이다. 러스크가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1973년 9월 28일로 확인된다. Letter from C.W. Chistenberry to Robert Blum, January 24, 1955,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4/55, Asia Foundation records, Box P-79,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an Francisco (이하 AF records, Box P-79로 약칭); Letter from Howard A. Rusk to Roland R. DeMarco, September 28, 1973, Rusk Papers, f.315.

터 1975년 6월 30일까지의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총수입과 지출 총액을 정리한 것이다. 한미재단의 회계자료를 보면 1954년까지는 누적 수입, 지출액이 집계되고 1954/55년도부터 정식 회계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1954/55년도의 회계보고서는 재단 관계자 사이의 편지에서 자료가 첨부되었다는 얘기만 있을 뿐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관의 규정대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1960/61 회계연도부터이다.

표1 한미재단 총수입 총지출 추이(1952~1975, 단위: \$)

회계연도	수입	지출	출처
1952년 5월 15일 ~ 1953년 12월 31일	3,018,322.00	3,018,322.00	1954. 1. 26. 이사회 보고서 Rusk Papers, f291
1952년 5월 15일 ~ 1954년 3월 31일	4,924,291.01	4,924,291.01	1954. 4. 20. 이사회 보고서 Rusk Papers, f291
1954년 6월 1일 ~ 1955년 5월 31일	7,021,935.69	-	1955. 9. 1. 크리스베리의 편지 Rusk Papers, f309
1955년 6월 1일 ~ 1956년 5월 31일	1,114,568.33	1,309,137.97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5
1956년 6월 1일 ~ 1957년 5월 31일	896,506.57	1,169,874.39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5
1957년 6월 1일 ~ 1958년 5월 31일	225,361.49	405,377.07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6
1958년 6월 1일 ~ 1959년 5월 31일	614,655.00	518,722.00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6
1959년 6월 1일 ~ 1960년 6월 30일	717,871.01	663,452.45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7
1960년 7월 1일 ~ 1961년 6월 30일	883,701.44	782,039.39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7
1961년 7월 1일 ~ 1962년 6월 30일	925,656.63	874,014.16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8
1962년 7월 1일 ~ 1963년 6월 30일	795,908.62	769,782.06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299
1963년 7월 1일 ~ 1964년 6월 30일	1,048,005.04	1,124,086.89	회계보고서, Rusk Papers, f300
1964년 7월 1일 ~ 1965년 6월 30일	941,963.00	990,067.00	연례보고서, Rusk Papers, f300
1965년 7월 1일 ~ 1966년 6월 30일	1,169,657.00	1,129,666.00	연례보고서, Rusk Papers, f301
1967년 7월 1일 ~ 1967년 12월 31일	442,396.00	748,789.00	수입지출내역표, Rusk Papers, f301
1968년 7월 1일 ~ 1968년 12월 31일	501,956.00	854,313.00	수입지출내역표, Rusk Papers, f301
1968년 7월 1일 ~ 1969년 6월 30일	1,934,256.00	2,194,577.00	잠정예산표, Rusk Papers, f301
1969년 7월 1일 ~ 1970년 6월 30일	2,749,400.00	2,767,800.00	잠정예산표 (예산액) Rusk Papers, f301
1970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	1,780,000.00	-	잠정예산표 (예산-상정액) Rusk Papers, f301
1971/72. 1972/73 회계연도 회계자료 부재			
1973년 7월 1일 ~ 1974년 6월 30일	2,199,951.00	2,219,449.00	연례보고서, George Fox Mott papers, Box 10
1974년 7월 1일 ~ 1975년 6월 30일	1,900,948.00	1,817,313.00	연례보고서, George Fox Mott papers, Box 10

표1을 분석해보면 한미재단 설립 초기에는 1954년 처음 3개월 동안에만 약 2백만 달러가 견힐 정도로 모금캠페인에 대한 호응이 높았으나 1955년부터 100만 달러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1957/58 회계연도에 총수입액이 약 22만 달러로 급감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총수입액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5/66 회계연도에 약 117만 달러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급감하고, 1968/69 회계연도부터는 이례적으로 2백만 달러까지 급증하여 그 추세가 1974/75 회계연도까지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²⁰

주목할만한 점은 1955/56 회계연도부터 나타난 재정적자와 1957/58 회계연도에 급감한 수입이다. 한미재단의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재단의 정책이 다른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재단이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1954/55 회계연도부터이다.²¹ 특히, 1955/56 회계연도에는 경상비가 사업비 \$969,732.97 대비 35%인 \$339,373.87, 1956/57 회계연도에는 경상비가 사업비 \$514,412.74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249,953.94를 차지한다.²² 이는 경상비 지출의 증가가 1955/56 회계연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적자의 주요 원인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사업(특히,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확장이었다. 한미재단의 활동에 대한 우려는 아시아재단도 이미 1954년 말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한미재단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한 팔머 베비스와 1954년 9월부터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한미재단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아시아재단의 로버트 슈완츠(Robert S. Schwantes)가 본부에 보고한 서류에는 한미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도착한 한국 학생들이 재원 부족으로 곧바로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미재단이 상황을

20 1968/69 회계연도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한 총수입액은 씨그레이브 기념병원(Seagrave Memorial Hospital)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다. 고든 씨그레이브(Gordon S. Seagrave)는 미얀마 농민들의 질병 치료와 보건 향상에 평생을 바친 의사였다. 그의 사후, 미얀마 정부가 병원을 폐쇄하자 그의 후원자들이 한국에서 그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한미재단에 15만 달러를 기부하였는데, 그 결과 1969년에 총공사비 67만 달러와 의료기자재 27만 달러가 투입된 건평 1,000평에 100병상을 갖춘 현대적 병원이 전라북도 군산에 건립되었다. Rusk Papers, f.322, Organizations, A-K Foundation, Seagrave Memorial Hospital, 1968-1974; 『창립 제20주년 기념 한미재단』, p.13.

21 1954년 4월 이사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미국 내 직원과 한국사무소 직원이 확충되면서 한국 내 다른 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재단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책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 예산에 경상비를 총 \$110,699로 계상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Rusk Papers, f.292

22 Accounts' Report, May 31, 1956, Accounts' Report, May 31, 1957, Rusk Papers, f.295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외국학생상담사협회 이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는 설명이 등장한다. 또한, 한미재단이 추진한 천만 달러 모금캠페인이 백만 달러만 달성한 데다 그중 상당 부분이 캠페인 경비로 소요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활동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1955년 2월 1일부로 폐쇄되고 장학금 프로그램과 뉴욕본부의 직원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²³

한미재단 내부에서도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었다. 1956년 한국에 서의 사업을 조사하고 귀국한 크리스베리 총재는 러스크에게 보낸 메모에서 1956년 말까지 70만 달러의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뉴욕사무소를 폐쇄하고 한국사무소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현재의 기금모금 활동이 성공한다면 1957/58 회계연도까지 현재 수준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기관 후원자들이 애초에 한미재단에 대한 후원을 일시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번 모금이 마지막이라 선언하고 재단의 명예로운 퇴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²⁴ 결국, 1956년 7월 23일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남은 회계 기간에 인력과 사무실 공간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1956년 11월 20일부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종료하되, 기금모금은 주로 학교나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²⁵ 예산삭감 소식을 접한 한미재단 한국사무소의 리처드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는 뉴욕과 한국사무소의 경상비 과다 지출이 일종의 '범죄'라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직원의 축소가 결국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차라리 아시아 재단과의 통합을 시도하든가 재단의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고 뉴욕사무소를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축소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²⁶ 언더우드의 제안에 대해 뉴욕본부는 재단의 재정상태에 대한 위기의식을 1955년부터 인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크리스베리의 장기적 계획을 토대로 인력 감축이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재

23 Robert S. Schwantes to the Record, November 17, 1954; Harry H. Pierson to The Record, December 20, 1954; Robert S. Schwantes to The Record, January 25, 1955, AF records, Box P-79. 실제로 한미재단 한국사무소장인 하워드 브룩스(Howard L. Brooks)는 1955-56학년도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미국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Howard L. Brooks, "Policies on AKF Educational Grants-in-Aid and Fellowships for the 1955-1956 Academic Year," AF records, Box P-79.

24 Memorandum from C.W. Christenberry to Howard A. Rusk, April 6, 1956, Rusk Papers, f.295.

25 Letter from C.W. Christenberry to Mrs. Howard A. Rusk, August 27, 1956, Rusk Papers, f.310.

26 Memorandum from Richard F. Underwood to Howard R. Rusk, November 1, 1957, Rusk Papers, f.311.

단의 기금모음이 대체로 연말에 집중되기에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으며, 한미재단의 목적이 한국에서의 특정한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대중이 한국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국보전》에 대한 간접적 후원을 예로 들었다.²⁷ 1957/58 회계연도 활동을 재단 이사들에게 알리는 보고서에 첨부한 인사말에서 크리스베리 총재가 재단이 예산, 인력, 사업을 축소하여 재정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재단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본부의 입장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⁸ 재정위기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의 과정을 통해 1958년 뉴욕에서의 전시를 한미재단이 후원하고 나선 것은 결국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한미재단의 전시 후원과 스카스데일 프로젝트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재단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설립되었고, 그러한 비전속에는 한미간의 문화교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한미재단은 초창기부터 한국의 사찰과 고서를 보존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나,²⁹ 전후의 긴급한 재건의 수요에 대응하느라 문화 분야의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1958년 뉴욕에서 개최된 《국보전》과 《현대한국회화전》에 대한 후원부터였다. 그러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는 방편으로 본격화한 문화 분야 지원 사업에서 한미재단은 문화교류라는 본래의 취지 외에 다른 목적을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전시의 준비 및 개막행사를 위해 한미재단은 사전에 미술관 및 화랑 관계자와 만나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홍보계획을 세웠다. 《국보전》과 관련해서는 1957년 11월 26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에서 큐레이터 앨런 프리스트(Alan Friest), 홍보실 직원 릴리안 그린(Lillian Green), 한미재단 측에서 도로시 프로스트(Dorothy M. Frost) 박사, 직원인 이튼(Eaton)과 커틀러(Cutler)가 만나 전시개막일 확정(1958

27 Letter from Eugene J. Taylor to Richard F. Underwood, December 5, 1957, Rusk Papers, f.311.

28 Rusk Papers, f.296.

29 한미재단 2차 사절단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미재단이 한국 고적과 고서의 보존, 복구를 위해 \$25,000,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해 \$10,000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다. "Report to the President, Republic of Korea," August 26, 1953, Rusk Papers, f.290.

년 2월 4일 언론인 대상 사전개막행사, 2월 7일 미술관 회원 대상 개막행사, 2월 9일 일반인 대상 개막행사), 전시 관련 한국미술 강연계획, 도록 판매, 초대장 발송,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임병직 주유엔대사의 사무실에서 2월 4일에 리셉션을 개최하고, 2월 이벤트로 《국보전》을 소개하는 미술관의 신년 달력과 초대장을 미술관 회원 만 명과 한미재단 관계자 및 후원자(500~1,000명)에게 발송하는 계획이 마련되었고, 『타임 Time』지에 실렸던 전시기사의 활용방안과 2월 7일의 개막일 성공을 위해 주요 재단 이사와 한국정부 고위인사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일정도 검토되었다.³⁰

《현대한국회화전》과 관련해서는 1958년 1월 28일 월드하우스 화랑 측에서 브루노(Bruno)가, 한미재단 측에서 프로스트 박사 및 2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총 37명의 118점의 작품 중에서 화랑이 전시될 작품을 선정하여 2월 25일에서 3월 22일까지 개최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라디오, TV 등의 매체를 통한 전시 홍보, 한미재단과 한국정부 고위인사 개막일 참석 독려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특히, 더 많은 대중에게 한국미술을 알리기 위해 미술 작품 구매 경험이 있는 한미재단 이어나 후원자가 구매한 작품을 한미재단에 기증하여 그것을 여러 도시의 미술관에 대여 전시하자는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전시 도록에 미국미술협회(American Federation of Arts) 후원으로 일부 작품이 순회 전시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업화랑에서 개최되는 《현대한국회화전》은 《국보전》만큼 언론의 관심 대상이 아닐 것이기에 홍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화랑 측 인사인 브루노가 앤 스코트 모닝스타(Ann Scott Morningstar)를 통해 한미재단, 한국미술 그리고 월드하우스 화랑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보라는 제안을 하였다.³¹

브루노의 제안은 이를 뒤인 1월 30일 모닝스타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선 한미재단이 모닝스타에게 홍보활동을 위해 한미재단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이사와 후원자 목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모닝스타가 김재원 국립박물관 관장을 만나 한미재단 및 《현대한국회화전》을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출연 의사를 타진하고, 미국 저명인사들의 인명록인 소셜 레지스터(Social

30 "Notes," Rusk Papers, f.295, 『타임』지 기사는 "Art Treasures from Korea," *Time*, 1957. 12. 16, pp.76-79 참조.

31 Memorandum for the Records, January 29, 1958, Rusk Papers, f.296.

Register)의 명단에서 선별한 인물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국보전》 개막식 직후에 양유찬 주미한국대사 및 주요 한미재단 이사들과 접촉해 《현대한국회화전》 개막식에 초대하는 등의 세부 활동계획이 논의되었다.³² 모닝스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여성 단체 카파 카파 감마(Kappa Kappa Gamma)의 홍보이사이자 모닝스타 프로덕션(Morningstar Productions)의 대표로서 미국 사교계 저명인사들과 접촉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참여는 한미재단이 재단의 활동과 《국보전》 및 《현대한국회화전》을 홍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³³

뉴욕에서의 두 전시는 이처럼 철저한 사전준비와 홍보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다. 두 전시의 개막일 풍경이 한국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복을 입은 한국인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도 모닝스타가 사전에 미술관과 화랑 관계자 및 한미재단과 논의한 대로 연출된 것이었다.³⁴ 한미재단 뉴욕본부도 재단 이사와 후원자들에게 두 전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958년 1월 24일에는 《국보전》이 한국정부가 긴급한 재건의 시기에 도움을 준 미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개막식 참석을 요청하는 편지를 이사들에게 발송하였고,³⁵ 1958년 2월 17일 한미재단 이사와 후원자에게 보낸 공문에서는 《현대한국회화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행사라는 의의를 밝힌 뒤, “한미재단은 우리의 동맹 한국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한국전쟁 중에 설립되었다. 비정치, 비영리 단체인 한미재단은 주로 보건, 교육, 복지 분야에서 한국을 지원해왔다. 재단은 또한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화를 복구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전시는 그러한 노력의 감격스러운 결과물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한미재단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공표했다.³⁶

그 결과 두 전시는 『뉴욕타임스 *The New York Times*』, 『뉴욕 헤럴드 트리뷴 *New York Herald Tribune*』, 『뉴욕커 *New Yorker*』, 『네이션 *Nation*』, 『아트 뉴스 *Art News*』, 『아츠 *Arts*』 등 뉴욕의 여러 신문과 잡지에 보도되며 뉴욕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월드하우스 화랑에서의 전시에서도 처음 소개되는 낯선 한국미술이었음

32 “Notes,” Rusk Papers, f.296.

33 “Achievement, Too, For Individual Alumnae,” *The Key*, 75:3 (Autumn 1958), p.38.

34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2000), p.129; “Modern Korean Art Going on Exhibition,” *The New York Journal-American*, 1958. 2. 22.

35 Rusk Papers, f.312.

36 AF records, Box P-151.

에도 12점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³⁷ 표2는 《현대한국회화전》을 개최한 월드 하우스 화랑의 판매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판매기록이다.³⁸ 1958년 6월 기준 한국작품 12점이 판매되었고, 이후 1959년 5월 28일에 최영림의 작품 3점을 판매한 기록이 확인된다. U Song으로 표기된 작가는 장우성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대한국회화전》에 출품된 작품은 35명 작가의 62점으로 장우성의 작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시를 위해 월드하우스 화랑으로 가져간 37명 작가의 118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 현황을 보면 뉴욕근대미술관과 록펠러 부인이 이응노 작품을 구매했고, CBS 방송사 사장인 루이스 코원(Louis G. Cowan)이 〈노상〉을, 오타크링거 맥주회사(Ottakringer Brauerei)의 외동딸 베라 쿠프너(Vera Kuffner)가 〈모자〉를 구매하였다. 장우성의 작품을 구매한 하이먼 소빌로프(Hyman J. Sobiloff)는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약학대학(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의 설립자이자 기업가로 확인된다.³⁹ 박노수와 성재휴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판매가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랑주 허버트 메이어(Herbert Mayer)인 것으로 보인다.

《국보전》은 상업전시가 아니었고, 《현대한국회화전》의 경우 판매대금 중 비용을 제하고 해당 작가에게 전달하기로 되었기에 전시수익금이 한미재단의 수입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따라서 외견상 한미재단이 두 전시를 후원한 것은 “한미재단은 월드하우스 화랑과 협력하여 재단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한국민과 미국민 사이의 우정을 다지는 일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전시 안내서의 설명대로 한미재단의 새

37 Howard Devree, “Exotic Treasures,” *The New York Times*, 1958. 2. 9; Maurice Grosser, “Art,” *Nation* (1958. 2. 22), p.74; “Korean Paintings Shown,” *New York Herald Tribune*, 1958. 2. 26; Robert M. Coates, “The Art Galleries,” *New Yorker* (1958. 3. 1), p.88; Parker Tyler, “Reviews and Previews: Contemporary Koreans,” *Art News* (1958. 3), pp.12-13; Hugo Munsterberg, “Month in Review: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Arts* (1958. 3), p.59 참조.

38 Sales & Purchases, Rough Draft of Sales, 1957-1966, World House Galleries records, 1927-1991, Bulk 1953-1980,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이상범의 작품은 메이어가 \$1,100에 구매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67~76년의 재고기록에는 김기창(\$1,000.00), 박노수(\$100.00), 성재휴(\$215.65)의 작품이 등장한다. Inventory Records, Consignment, 1967-1976, World House Galleries records, 1927-1991, Bulk 1953-1980,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판매기록에 보이지 않는 김기창의 작품이 재고기록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당시 월드하우스 화랑으로 보내진 작품 중 일부가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월드하우스 화랑에 남아있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39 정무정, 「박수근과 외국인 소장가의 조우-냉전 문화의 한 양상」, 『東洋美術史學』14 (2022. 2), p.208; <https://www.encyclopedia.com/arts/educational-magazines/sobiloff-hyman-jordan-1912-1970> (2023. 2. 13 검색).

표2 1958년 《현대한국회화전》 판매기록 (단위: \$)

판매날짜	작가	구매자	판매가격 (비용)
1958. 2. 26	이석우	Leo Eis	450.00 (90.65)
1958. 2. 27	U Song (장우성?)	Sobiloff	450.00 (90.65)
1958. 3. 3	박노수	Mayer	100.00 (115.65)
1958. 3. 3	성재휴	Mayer	200.00 (215.65)
1958. 3. 21	박수근	Vera Kuffner	250.00 (165.65)
1958. 3. 18	박래현	Lepton	375.00 (190.65)
1958. 3. 28	류경채	LeVitt	550.00 (315.65)
1958. 4. 10	이용노	Rockefeller	275.00 (75.00)
1958. 5. 1	이용노	MoMA	337.50 (165.50)
1958. 5. 1	이용노	MoMA	225.00 (90.65)
1958. 5. 28	박수근	Louis G. Cowan	800.00 (400.00)
1958. 10. 29	유강렬	P. Berner (?)	25.00 (15.00)

로운 방향모색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두 전시를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그 이면에 자리한 또 다른 의도가 드러난다. 사실 1956년 재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관 후원자를 상대로 한 모금 활동을 종료하고 학교나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결정은 한미재단에 새로운 후원자층의 발굴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전시에 대한 후원을 통해 전시 홍보자료에 한미재단의 존재와 활동상을 드러내고, 미술관과 화랑의 회원이나 고객명부에 접근하며, 홍보전문가인 모닝스타를 통해 미국 사회의 저명인사와 접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미재단이 접근하지 못한, 그러나 재단이 수행할 새로운 문화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후원을 해줄 잠재적 후원자층(예로, 코윈, 쿠프너, 소빌로프 등)의 확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한미재단의 1958년 뉴욕전시 후원은 재단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원자층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이벤트였다고 하겠다.

한미재단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후원자층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미재단-스카스데일 프로젝트(AKF-Scarsdale Project, 이하 스카스데일 프로젝트로 약칭)였다.⁴¹ 인구 약 17,000명의 뉴욕시 교외에 자리한 마을인 스카스데일은 한미재단 이사장과 이사인 러스크 부부의

40 AF records, Box P-151.

41 스카스데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준비과정, 사진 자료, 신문 보도기사를 모은 2권의 스크랩북이 스카스데일 공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AKF-Scarsdale Project, Vols. I-II*, Scarsdale Public Library, 1959.

거주지로, 195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지역 각 계각층의 주민들이 폭죽에 소비할 돈으로 한국을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한미재단은 2월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국을 돕자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여러 차례 주민들의 모임을 주선해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재단의 업무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비영리 자선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 내에 여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세운 뒤, 7월 4일 11,000명 이상의 시민과 100여 명의 한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스카스데일 고등학교 교정과 교사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것이었다. 세차, 재봉, 기증품 경매, 음식판매, 꽃꽂이와 한국인형 판매 등의 행사로 조성된 총 \$25,000의 기금이 한미재단에 기부되고 그 일부가 한국 어린이 500명에게 장학금으로 제공되었다. 행사 중에는 이전의 경험을 살려 한국미술품 전시와 판매도 이루어졌는데 총 3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전시에서 16점의 회화와 판화작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⁴² 장학금 전달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진행위원장 로버트 들레니(Robert E. Delany)가 독립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스카스데일 프로젝트 관련 소식이 한국을 넘어 괌,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에도 알려졌다고 전했듯이, 스카스데일 프로젝트는 미국과 한국 및 아시아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⁴³ 그 과정에서 한미재단의 활동상에 대한 보도가 미국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국보전》 및 《현대한국회화전》과 마찬가지로 스카스데일 프로젝트도 한미재단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고 후원자층을 넓히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이벤트였다고 하겠다.



2
한미재단-스카스데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한국미술품
전시광경
1959년 7월 4일
AKF-Scarsdale Project
Vols II
Scarsdale Public Library
1959

42 전시를 위한 작품 모집은 한국사무소의 리처드 언더우드가 담당하였다. 그는 1959년 5월 12일 대표적 한국미술가를 조선호텔로 초대하여 전시 배경과 목적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시 전시장면을 찍은 사진에서 박수근 외에 김영주 등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Letter from Richard F. Underwood to Park Soo Kun, 1959. 5. 8: 『귀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2017), p.479; Howard A. Rusk, "A New Kind of Fourth of July," *The New York Times*, 1959. 7. 5; Annual Report, 1959-1960, Rusk Papers, f.297.

43 "Scarsdale's Emissary Reports on Heart-Warming Reception in Korea," in *AKF-Scarsdale Project, Vol. II*, Scarsdale Public Library, 1959.

V. 나가는 말

한미재단의 수입이 \$225,361.49로 줄어든 1957/58 회계연도 이후인 1958년 10월 2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사무총장 도로시 프로스트는 재단이 한국의 전반적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이외에 “한국과 미국의 역사, 문화, 풍속, 민주적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넓히기 위해” 장기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한 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스카스데일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를 소개하는 강사나 예술가를 섭외하고 대표적인 한국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나 공연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⁴⁴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연례보고서에는 기존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 외에 《국보전》, 음악회, 무용페스티벌, 스카스데일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특별프로젝트 항목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도 드라마 센터를 위한 기자재와 도서자료 지원, 음악교재와 악보 지원을 위한 ‘한국을 위한 음악(Music for Korea)’ 사업, 한국의 인형, 의상, 삶을 찍은 사진전 순회, 미국 내 한국의 밤 행사, 한국농촌의 삶을 찍은 55점의 흑백 사진으로 구성된 사진전인 ‘한국 화보 프로젝트(Korea Pictorial Project)’ 순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조사한 『한국의 장식적 기와 *Ornamental Roof Tiles of Korea*』, 『조선의 도시 *The City of the Yi*』, 그리고 『한국의 여관 *Inns of Korea*』 등의 자료발간, 1964년 9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된 한국미술전 개최 지원 등으로 이어졌다.⁴⁵

이처럼 다양해진 문화지원 활동은 한미재단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려는 한미재단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고, 그러한 문화사업의 확대는 한미재단의 창립자들이 초기에 구상했던 재단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재단의 문화사업은 확장성을 갖지 못한 채,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사업의 범주가 기존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로 고착되었다. 특히, 지역사회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기존의 특별프로젝트 항목조차 보건과 지역

44 Annual Reports, 1958/1959, Rusk Papers, f.296.

45 Annual Reports, 1960/1961; Annual Reports, 1961/1962; Annual Reports, 1963/1964; Annual Reports, 1964/1965, Rusk Papers, f.297, f.298, f.299, f.300. 한미재단이 지원한 한국미술전은 올림픽이 열린 도쿄에서 1964년 10월 10일-24일에 미협 주최로 개최한 현대미술전일 것으로 판단된다. 「64년도 올림픽 계기 동경서 우리 현대미전」, 『동아일보』, 1964. 1. 9, p.5; 「10월은 문화의 달」, 『동아일보』, 1964. 10. 1, p.5.

사회개발 사업으로 채워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1974년 4월부터는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에서의 활동사례를 베트남에 이식시키려는 프로그램(예로 4-T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1976년에는 재단의 명칭 자체가 한미재단에서 한미아시아재단(The American-Kor-Asian Foundation)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 번 재단의 노선이 수정되었다.⁴⁶

재단의 창립자들이 애초에 구상했던 한미재단의 정체성은 재정악화를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구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한미재단 자체도 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활동 지역이 바뀔 만큼 정치적 변수에 취약한 단체였다. 나아가 미국 재활의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러스크 이사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진도 한미재단의 사업범주를 교육, 보건, 복지 분야로 고착화한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보전》, 《현대한국회화전》 그리고 스카스데일 프로젝트와 같은 한미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은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홍보와 모금캠페인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미재단이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서 수행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미재단이 지원한 4-H 클럽과 농촌개발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모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주리 주립역사협회에 소장된 러스크 문서를 토대로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Keywords

한미재단 American-Korean Foundation, 하워드 A. 러스크 Howard A. Rusk, 《국보전》 *Masterpieces of Korean Art*, 《현대한국회화전》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월드하우스 화랑 World House Galleries, 스카스데일 프로젝트 Scarsdale project.

투고일 2023년 3월 20일 | 심사일 2023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46 도로시 후로스트, 『창립 제20주년 기념 한미재단』 (한미재단, 1972); 1973-1974 Annual Reports, Rusk Papers, f.304; Semi-Annual Report, June 30, 1976, Rusk Papers, f.305.

참고문헌

사료

- AKF-Scarsdale Project, Vols. I - II, Scarsdale Public Library, 1959.
- Asia Foundation records, Box P-79,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an Francisco.
- Rusk Papers, Organizations, A-K Foundation, Administrative, 1954, SHSMO-Center for Missouri Studies, Columbia, Missouri.
- World House Galleries records, 1927-1991, Bulk 1953-1980, 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기사

- "Art Treasures from Korea," *Time*, 1957. 12. 16, pp.76-79.
- Coates, Robert M., "The Art Galleries," *New Yorker*, 1958. 3. 1, p.88.
- Devree, Howard, "Exotic Treasures," *The New York Times*, 1958. 2. 9.
- Grosser, Maurice, "Art," *Nation*, 1958. 2. 11, p.74.
- "Korea Post Taken by Dr. Eisenhower," *The New York Times*, 1952. 12. 15.
- "Korean Art Exhibit," *The New York Times*, 1957. 12. 22.
- "Korean Paintings Shown," *New York Herald Tribune*, 1958. 2. 26.
- "Modern Korean Art Going on Exhibition," *New York Journal-American*, 1958. 2. 22.
- Munsterberg, Hugo, "Month in Review: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Arts*, 1958. 3, p.59.
- Rusk, Howard A., "A New Kind of Fourth of July," *The New York Times*, 1959. 7. 5.
- Tyler, Parker, "Reviews and Previews: Contemporary Koreans," *Art News*, 1958. 3, pp.12-13.

논저

- 권영훈 Kwon, Younghun, 「1953-1955년 한미재단의 보건의료부문 활동과 그 영향 Activity and Effect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in Public Health (1953-1955)」,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Yonsei University, 2017.
- 김재원 Kim, Jaewon, 『경복궁야화 Gyeongbokgung Yahwa』, 서울: 탐구당 Seoul: Tamgudang, 2000.
- 이봉범 Lee, Bongbeom, 「한미재단(American Korean Foundation), 냉전과 한미 하방연대 American Korean Foundation, the Cold War and Downward solidarity of Korea-U.S.」, 『한국학연구 *Korean Studies*』43, 2016. 11, pp.205-259.
- 이소라 Lee, Sora,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Activity and Historical Role of American-Korean Foundation (1952-1955)」,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8.
- 정무정 Chung, Moojeong, 「박수근과 외국인 소장가의 조우-냉전 문화의 한 양상 The Encounter of Park Soo Keun and His Foreign Collectors - An Aspect of Cold War Culture」, 『東洋美術史學 *Journal of Oriental Art History*』14, 2022. 2, pp.199-220.

정무정 Chung, Moojeong, 「1950년대 미국에 소개된 한국미술 Korean Art Represen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한국근대미술사학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14, 2005, pp.7-41.

Chi, James Sang, “Teaching Korea: Modernization, Model Minorities, and American Internationalism in the Cold War Era,”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8.

도록

World House Galleries,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New York, 1958.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s Sponsorship of the New York Exhibitions in 1958 and Its Meaning

Chung, Moojeong

In the early spring of 1958, an organization called the American-Korean Foundation (AKF) appears in the list of sponsors for the exhibitions *Masterpieces of Korean Art*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held respectively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the World House Galleries in New York city. Established in September 1959 with the long-range objectives of bringing the peopl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oser together, In its early stages, AKF carried out mainly emergency relief activities for war orphans, widows, the disabled, and wounded soldiers. Therefore, the AKF's sponsorship of the New York exhibitions in 1958 was somewhat unusual.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Howard A. Rusk papers stored in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and try to understand how AKF came to sponsor the New York exhibitions in 1958.

The AKF's accountants' reports shows that the ratio of operating expenses to program expenses began to increase, resulting in budget deficits in the mid-1950s. In order to overcome this financial crisis, AKF made a readjustment plan by which it drastically cut its staff and office space and divert its attention to cultural programs as a long-range project. Sponsorship for the exhibitions *Masterpieces of Korean Art* and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were part of these activities. While carrying on its cultural programs, however, AKF seemed to aim for the effect of publicizing its new projects and securing a new supporter group, ra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of cultural programs. The Scarsdale Project was also an event which was held to publicize its existence and to expand the number of supporters. In other words, for the officers who led AKF, cultural programs were merely a means of publicity and fund-raising campaigns.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projects conducted by AKF in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is not diminished. Based on the Howard A. Rusk papers in the State Historical Society of Missouri, it is hoped that research in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will be further pursued.

